



안녕, 나의 작은 간이역



김서윤 · 대구 동호초등학교 3학년

“자, 준비됐으면 출발!”

아빠의 구호로 시작하는 우리 가족의 주말 나들이, 차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딱’ 하고 채우면 여행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빠,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가요?”

“응. 군위에 있는 화본역이라는 곳이란다.”

“화본역? 역이라면 기차 타는 곳? 그럼 기차 타러 가는 거예요?”

“아니, 기차를 타는 건 아니고 오래된 간이역을 보러 가는 거야.”

“간이역? 간이역은 또 뭐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나에게 엄마가 말씀하셨다.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복잡하지 않고 조그만 기차역을 간이역이라고 하는데

직접 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사실 나는 실망스러웠다. 기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또 놀 거리도 없을 것 같은 기차역에 왜 가는 걸까 하고. 하지만 막상 차를 타고 아파트가 숲을 이룬 우리 동네를 빠져나오니 여행의 기분이 되살아났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보이고 파란 하늘에 떠 있는 하얀 뭉게구름이 보이는 여름날의 풍경은 정말이지 예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금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들어서자 갑자기 이런 곳에 기차역이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맘이 들기 시작했다.

동대구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니 기분은 더 이상해졌다.

“자, 도착했으니 내릴까?”

난 여전히 알쏭달쏭한 마음으로 차에서 내려 역을 향해 걸어갔다.

그렇게 조금 걸었을까? ‘화본역’ 하고 또박또박 이름이 적힌 작은 건물이 내 눈에 들어왔다. 약간 허름하기도 하고 낡아 보이는 조그마한 역. 역 앞에 도착하니 내 알쏭달쏭한 기분은 순식간에 신기한 기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언젠가 동화책에서 본 것 같은 숲속의 작은 집 처럼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몇 개의 계단을 올라 ‘드르륵!’ 소리가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동화책 속으로 들어가는 착각이 들었다. 작은 역 안에는 예전에 역에서 사용한 물건들도 있고 100년의 역사를 가진 화본역에 대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물건들과 또 흑백으로 된 사진을 보고 있으니 마치 옛날 속으로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쪽에 작은 매표소가 있는데 화본역에서는 진짜 기차표를 끊어서 기차를 탈 수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하루에 여섯 번 정도 기차가 온다고 한

다. 기차를 타고 내리는 플랫폼으로 가보기 위해 기차표처럼 생긴 입장권에 ‘क्’ 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사람들이 많아 북적북적하고 시끌시끌한 곳이 아니었다. 아주 조용하고 매미 우는 소리만 들려왔다. 길게 이어진 기차길 양옆으로 내 키만 한 풀들이 자라나 있고 그 사이로 꽃들이 가끔씩 고개를 내밀었다. 근처에는 논과 밭도 있었는데 온통 초록색으로 물든 것 같았다. 기차길 위에 뿌려진 돌맹이 조각도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여서 눈이 부셨다.

“그럼 저 끝에서부터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기차를 탄단다. 조금 느리고 덜컹거릴지 몰라도 정말 고마운 기차야. 그렇지만 앞으로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 결국 이 기차역도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어, 그럼 안 되는데…. 100년이나 가까이 이렇게 있어 줘서 나도 와 보게 되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찾아올 수 있게 그대로 있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빠,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니 표정과 눈빛이 내 마음과 똑같아 보였다. 미소 짓고 있지만 아쉬운 마음이었다. 물론 크고 웅장한 역들도 좋지만 나에게는 작고 아늑한 이 간이역이 더 다정하게 느껴졌다.

처음 와 본 작은 기차역이지만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이런 간이역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한다. 그 역들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간이역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와 추억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다. 우리 가족은 ‘화본역’이라는 세 글자를 배경으로 ‘찰각’ 사진을 찍었다.

“자, 준비됐으면 이제 집으로 출발!”

아빠의 자동차가 다시 달린다.

내 마음속 작은 역에서는 기차가 출발한다.

‘기차길은 아직 칙칙폭폭 하는 소리를 기억하고 있겠지? 기차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말이야. 다음에는 진짜 기차를 타고 이곳으로 올 수 있을까?’

마음이 칙칙폭폭 소리를 낸다.

“안녕, 화본역! 안녕, 꼬마역!”

